

WEF Weekly Stories

2025년 3월 25일, WEF 4차 산업혁명센터, 경기도 대한민국

센터 웹사이트: Koreago.net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주 발간하는 Forum Stories 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Forum Stories 발간일자: '25년 3월 21일)

1. 물 복원력을 갖춘 미래로 가는 길



'빙하 보존'이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로 떠올랐다.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는 수자원 안보, 생태계, 인류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지구의 전체 수자원 중 단 0.5%만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로 기후 변화로 이마저도 위험에 처해 있다. 수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알아본다.

- 세계경제포럼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원 조달 방식과 유연한 거버넌스 등 수자원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 자연에서 물 위기 극복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은 물 자원의 회복력을 높여 인류와 자연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며

비용 효율성, 측정 가능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효용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의 물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 관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 투자자들은 핵심 기술에 대한 자본 투자를 통해 수자원 복원력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마련한 수자원 투자 가이드는 수자원 분야를 처음 접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회와 절차 등을 안내한다.

담수에 관한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 전 세계 학교 10곳 중 3곳은 기본적인 급수 설비도 갖추고 않고 있다.
-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수자원 시스템의 구축은 2049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More

2.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세계경제포럼(WEF)의 초기 단계 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업링크(UpLink)'에 따르면 창업가 정신이 전 세계의 주요 과제들의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업링크는 '2025 연례 임팩트 보고서(Annual Impact Report 2025)'를 통해 2024년 업링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혁신 기업들이 총 '6억 3,300만 달러(약 8천7백억 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으며 획기적인 해결책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협력이 없다면 혁신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산업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에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보고서를 통해 7개의 핵심 지표를 소개하고 혁신과 협업이 세계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 **초기 혁신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가장 영향력이 큰 분야의 선별,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하는 생태계의 구축 등 **혁신의 확산을 돕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한다.

핵심 포인트:

- **인터넷 시대로 일본 혁신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일본이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살펴본다.
- **스타트업 기업 '바빌론 마이크로 팜(Babylon Micro Farm)'은 지역 사회와 기업이 자체 미니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사의 **실내 수직 농장 기술**을 제공하여 식량 안보 강화, 식품 폐기물 문제 해결, 영양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 **AI와 위성 기술의 도움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미래 교통에 두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알아본다.

More

3.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전 세계적으로 약 45억 명이 여전히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을 위한 노력 대부분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 서비스가 모두에게 제공되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을 소개한다.

- 디지털 헬스 기술은 의료 인력에 대한 온라인 지원부터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지리적·경제적 장벽을 극복하려는 국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품질 진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성평등과 건강 형평성이라는 글로벌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 임상시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면 현재 의료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평균 25%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는 의료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기후로 인한 질병과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들은 대부분 회복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저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일본은 산후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산후 여성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고 있다.
- 콜롬비아에서는 이동형 스마트 클리닉을 통해 여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클리닉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심리상담가, 소아과 의사 등의 진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More

4차산업혁명센터 홈페이지



Forum Stories newsletter

Bringing you weekly curated insights and analysis on the global issues that matter.

Subscribe today →